



‘결승골 사나이’ 백지훈의 환호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K-리그 플레이오프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수원 삼성 백지훈(위)과 동료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성남 ‘왕중왕’ 다툰다

포항·서울 각각 꺾어... 19·25일 챔피언 결정전



프로축구 통산 네 번째 ‘별’을 노리는 수원 삼성이 K-리그 6회 우승에 빛나는 성남 일화를 상대로 올 시즌 프로축구 ‘왕중왕’을 다투게 됐다.

후기리그 우승팀 수원 삼성은 12일 오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후반 9분 터진 ‘이적생 효과’ 백지훈의 베퀱같은 중거리포를 앞세워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물리쳤다.

이에 따라 수원 삼성은 전남 FC서울을 1-0으로 꺾은 성남을 상대로 19일(탄천종합운동장)과 25일(이상 오후 2시·수원월드컵경기장)에 챔피언결정전 1,2차전을 치르게 된다.

특히 수원은 FA컵 결승 진출에 이어 K-리그 챔피언결정전 진출까지 이뤄내면서 올 시즌 2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전반전 종료까지 양 팀이 나눈 슈팅 수는 2개씩에 불과했지만 반칙은 수원과 포항이 각각 14개와 11개씩 범하는 숨겨진 공방이

이어졌다. 후반전 공격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수원. 송종국의 중거리포로 공격의 시작을 알린 수원은 후반 9분 백지훈의 베퀱같은 20m 중거리포가 그대로 포항의 골 그물에 꽂히면서 승리를 예감했다.

포항의 공격을 막아낸 뒤 펼쳐진 역습상황에서 상대의 태클을 뚫고 불을 댕겨낸 백지훈은 아크 왼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슛을 날렸고, 빨갛줄처럼 날아간 슛은 포항 GK 정성룡을 지나 크로스바 하단을 스치며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선제골을 뺏긴 포항의 파리아스 감독은 곧바로 부상에서 복귀한 ‘라이언’ 이동국과 프론트니, 파바레즈 등 공격수를 잇달아 투입해 반격을 노렸다. 이동국은 그라운드에서 나서자마자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는 등 활발한 몸놀림을 보였다.

포항은 연이어 후반 18분 이동국이 아크 정면에서 내준 불을 받은 김기동의 강력한 중거리포가 수원 GK 박호진의 선방에 막히면서 동점골 사냥에 실패했다.

오히려 수원은 후반 막판 포항의 산발적

인 공격을 막아낸 뒤 역습으로 나서는 등 공격축구를 구사하면서 이날 경기장을 찾은 3만7천여 명의 홈 팬들에게 챔피언결정전 진출이라는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맨유, 선두 유지

블랙번 1-0 제압

박지성의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지켰다. 맨유는 12일 오전(한국 시간) 원정 경기로 열린 블랙번 로버스와 2006~2007 시즌 프리미어리그 12차전에서 후반 19분 터진 스트라이커 루이 사아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을 더한 맨유는 10승1무1패(승점 31)로 리그 1위를 굳게 지켰다.

맨유를 바짝 쫓고 있는 지난 두 시즌 연속 우승팀 첼시는 왓포드와 홈 경기에서 디디에 드로그바의 헤트트릭에 이어 안드리 셉첸코의 추가골로 4-0으로 크게 이겼다.

이규혁 男 1,000m 금메달

국제빙상 월드컵 이상화 여자 500m 은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베테랑’ 이규혁(서울시청)이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디비전A(1부리그) 남자 1,0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12일(한국시간) 새벽 네덜란드 히렌벤 티알프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이틀째 남자 1,000m에서 1분09초01을 달려 지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니 데이비스(미국·1분09초38)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전날 남자 500m에서 3위에 올랐던 이규혁은 이날 8조에 속해 역주를 펼친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신기록(1분08초37)에 0.64초 뒤지는 좋은 기록으로 정상에 올

랐다. 함께 출전한 문준(성남시청)은 1분09초99로 8위에 그쳤고 최재봉(동두천시청·1분10초63)은 16위에 머물렀다.

또 디비전A 여자 500m 두 번째 레이스에 나선 이상화는 중국의 ‘강호’ 왕웨이싱(38초26)에게 0.07초 뒤지는 38초3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이상화는 전날 500m 첫 번째 레이스에서 1위에 오르면서 여자 500m 월드컵 통합랭킹 1위를 지켜냈다.

이밖에 디비전A 여자 1,500m에 나선 노선영(서천군·2분01초79)은 22위에, 이주연(한국체대·2분2초21)은 24위에 머물렀다.

한편 디비전B(2부리그) 남자 1,000m에 나선 ‘단거리 전문’ 이강석(한국체대)은 1분11초2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종우(의정부시청·1분11초73)는 4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첫날 금 3개

중국오픈 국제유도

한국 실업선발팀이 중국오픈 국제유도대회 첫날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따냈다.

한국은 1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대회 첫날 경기에서 남자 90kg급 최선호(수원시청)를 비롯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선수단이 12일 알려졌다.

최선호는 이날 결승에서 영국의 제라트 브리토인을 왼쪽 엄머치기 절반을 누르고 우승했고 남자 100kg급 유광선(여주시청)도 결승에서 동지양잉(중국)을 배대뒤치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자 100kg 이상급에 나선 최성원(창원경륜공단) 역시 결승에서 웨이시양준(중국)과 연장 접전 끝에 발뒤축결기 효과를 따내 정상에 올랐다.

남자 81kg 김철규(창원경륜공단)는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부에서는 63kg급 박가영, 70kg급 장정현(이상 포항시청), 78kg급 박미선(인천동구청)이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최종전 터키에 완승

세계여자배구

한국 여자배구가 2006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터키에 완승을 거뒀다.

세계랭킹 8위 한국은 12일 일본 나고야 레인보우홀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16강) E조 마지막 경기에서 황연주(18점)와 김연경(16점·이상 흥국생명), 한송이(15점·도모공사)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터키(세계 15위)를 3-0(25-14 25-13 25-22)으로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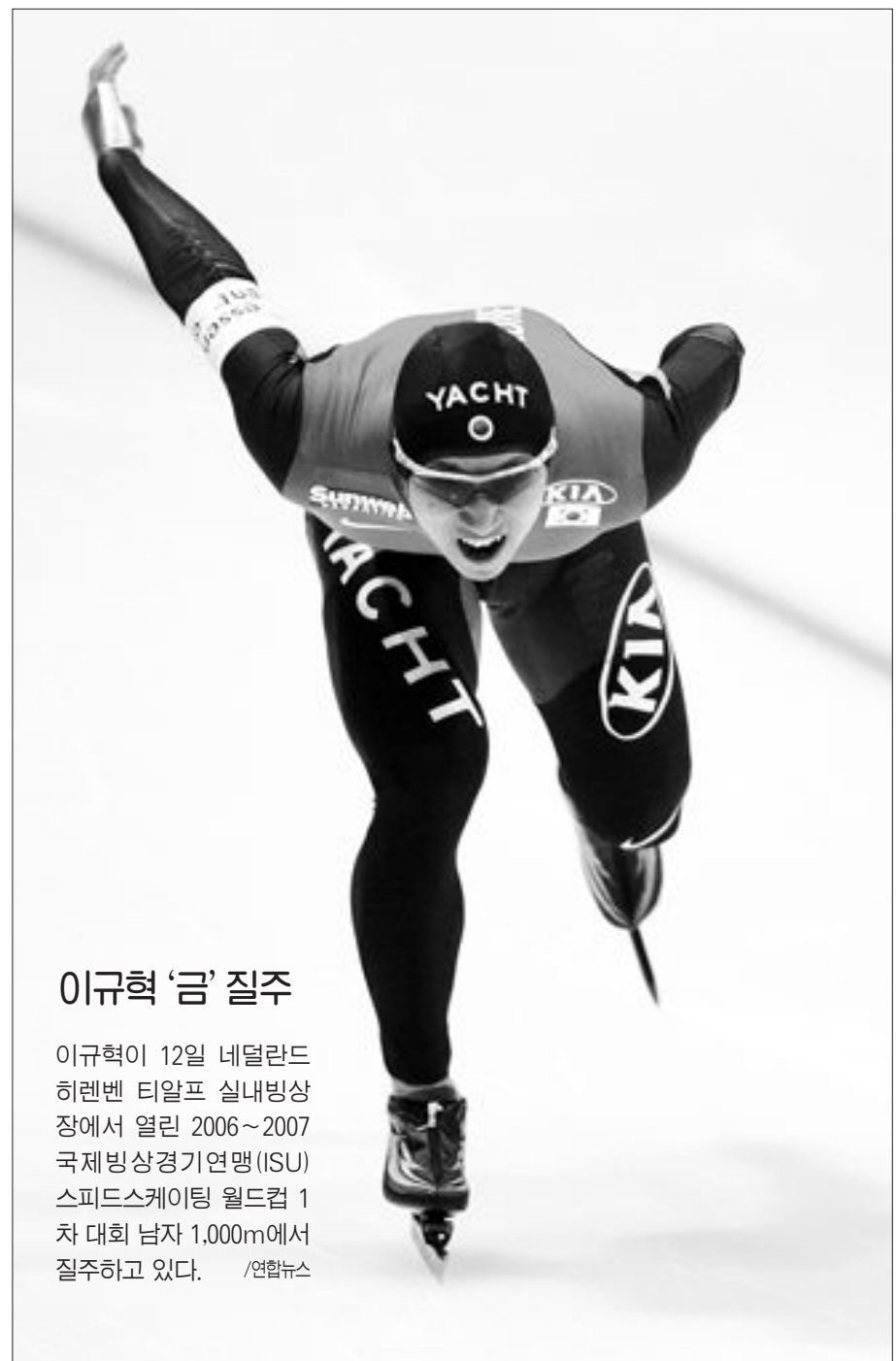
한국은 2라운드에서 이탈리아, 쿠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완패를 당하다 마지막 경기 하나만 건졌다.

여자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12강 밖으로 밀려났지만 공격과 수비에서 조직력을 갖춰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리베로 김혜란(도모공사)의 멋진 디그 등 안정된 수비로 첫 세트를 따내 기선을 제압했다.

1세트 3-3동점에서 서브득점 3개를 연속으로 성공한 김연경의 활약으로 내리 6득점, 균형을 깬 뒤 황연주의 강타와 한송이의 블로킹이 터지면서 25-14로 가볍게 이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규혁 ‘금’ 질주

이규혁이 12일 네덜란드 히렌벤 티알프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FURSIS office chairs, featuring images of various chair mode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Gwangju.

Advertisement for FURTEX heating appliances, including electric heaters and radiators, with product images and promotional text.